

# 보장받아야 할 감염인의 권리들

요즘 서점가에 다시 뜨고 있는 피천득님의 <인연>에 나오는 아사코처럼 세 번째에는 만나지 말았어야 할 해후같이 에이즈 양성판정 사실을 통보하는 관리자와 감염자와의 만남은 악연(?)으로부터 시작 된다.

몇 명의 감염자에게 에이즈양성 판정 사실을 통보하였던 경험을 거울삼아서 이번에 만큼은 별 무리 없이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사전에 거주지를 알아보고 출장을 가면 뜻하지 않은 복병이 나타나서 감염인과 첫 만남은 매끄럽지 못한 나의 행동에 대한 후회로 늘 끝난다. 때론 화가 난 얼굴로, 때론 황당함으로, 때론 이해할 수 없다는 얼떨떨한 모습으로 마치 딴 세상을 만난 듯한 표정을 항상 봐야 하는 고통과 안타까움이 있다.

에이즈 감염사실을 본인에게 알려드려야 하는 줄을 알면서도 주소지에서 살고 있지 않거나 찾고자하는 감염인을 모르고 있다거나 연락처가 다르거나 여행을 떠났을 때는 여기저기 수소문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다른 사람에게 보건소 이야기가 은연중 튀어나오기도 한다. 그럴 때는 상대방이 거짓말 탐지기라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을 알아버리거나 않았을까 하는 노파심으로 전전긍긍하기도 한다. HIV 항체 양성자가 발견되는 것은 건강진단이나 수술을 앞둔 준비단계의 혈액검사에서, 또는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 진단을 받았을 때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HIV 항체양성자라는 사실을 꿈에라도 생각해보지 않고 있다가 충격적인 말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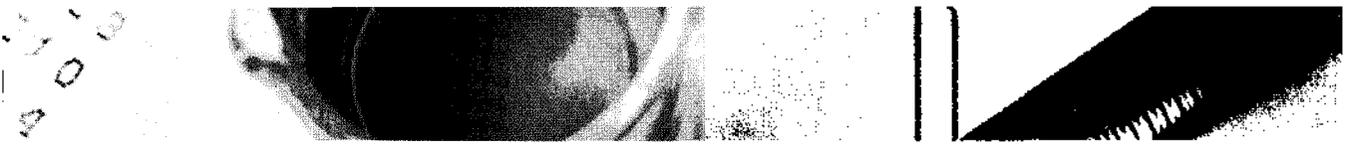
## HIV 항체 양성반응 확인 절차

병원에서는 HIV항체양성이 나타나면 해당 집체를 관할 보건소나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고 다시 의심난 검체를 국립보건원에 의뢰하면 그곳에서 최종 확인 검사 판정을 하고 고유 관리번호가 붙여진후 <역학조사>시행을 위한 거주지 보건소장에게 비밀문서로 전달되면서 관리가 시작된다.

HIV양성 판정 고지는 보건소에서만 한다. 보건소에는 1~2명의 에이즈 관리자가 업무를 보는데 이들은 관할지역 HIV항체 양성자에게 최초 고지를 하는 일과, 그래도 혹시나 해서 HIV항체 확인여부(국립보건원 면역결핍 연구실)를 하고 난 후에 확인이 되면 6개월마다 면역검사를 하면서 감염자

**이희란**  
인천동구보건소 예방의약담당

감염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진다. 원하지 않아도 감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될까봐 우려하기도 한다. 그 많은 괴로움 중에는 본인이 뜻하지 않게 주변 사람이 먼저 알게 될까 하는 걱정도 있다.



- > 1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일 경우 관할 보건소나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의뢰
- > 다시 국립보건원에서 최종 확인 검사 판정, 고유번호 붙임
- > 거주지 보건소장에게 비밀문서로 전달, 관리 시작

> 환자 → 사망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보건소 관리자가 하는 일은 HIV항체 양성자가 통보 되면 즉시 그 신원을 확인하여 빠른 시간 내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면담을 해야 하며 만약, 면담시 기혼자인 경우 가능한 한 배우자와 동시에 면담하여 배우자에 대한 전파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 비밀 유지 보장

항체양성자의 비밀을 위하여 담당자는 물론 절차과정에 있는 사람도 비밀 보장에 대해서 확약해야 하며 만약에 이것을 어기었을 때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간호에 참여한 자와 감염자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자에 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이즈 감염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 사실 등 신상비밀이 관련자 즉 감염자보호관리 업무종사자, 진단 간호에 참여한 자,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자 이외에는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 받게 되는데 대부분 감염자들은 감염사실이 노출될 우려를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관리자들의 비밀유지는 철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얼마 전 감염자께서 전화가 왔다. 보건소 직원이라면서 암 검진을 받으라고 하기에 안 받는다고 했더니 그쪽에서 안받는 이유를 묻기에 에이즈 감염자라서 그렇다고 했단다. 자세한 것은 보건소 관리자에게 여쭙보라고 했는데 도대체 보건소에서 비밀을 지켜준다고 하더니 그렇게 정보를 노출 시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항의하는 말 씀이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진위를 파악해보니 모 검사단체에서 「국가 암 검진 사업실적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관내에 사는 의료보호자 명단을 입수하여서 암 검진을 권유하면서 보건소라고 거짓으로 설득했던 것이었다. 옛 숙담에 “도둑이 재발 저런다”고 보건소라는 말만 듣고서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실토 했던 경우였다. “선생님! 저 이외에는 선생님에게 에이즈에 관해서 말씀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하고 다시 전화로 위로해 드렸다.

에이즈 관리자나 에이즈 감염자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의 여정에서 한 배를 탄 동반자이다. 감염자만큼은 아니지만 감염자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가 에이즈 관리자인 것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지극히 선한 인간성으로 감염자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음지에서 수고하시는 분이 많다. 신규 감염자가 들어오면 몇 달은 악연을 인연으로 바꾸기 위한 사연을 어떻게 말로 다할 수 있으랴!

